

신앙공동체 및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독교교육: 청소년 교육을 중심으로*

이 규 민**

장로회신학대학교

【요약】

본 논문은 한국사회 및 청소년의 현실을 비판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현재의 해체주의적 파편화와 분절화의 심각성을 일깨우고자 한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수정 및 대안적 가능성을 신앙공동체의 회복 및 영적 회복을 통해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재 문제의 진단과 함께 미래적 가능성을 조망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단계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목적을 달성한다. 첫째, 청소년을 위한 신앙공동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찰한다. 둘째, 영적 회복을 위한 원동력으로서 기도와 회개의 중요성을 평양대부흥운동의 역동적 원리 속에서 살펴본다. 셋째, 청소년의 영적 회복을 위한 코이노니아의 역동성을 고찰한다. 넷째,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목상을 통한 영적 부흥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다섯째,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과 훈련 소그룹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여섯째, 청소년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선교의 장을 개발하며, 청소년을 위한 관심 및 나눔 공동체의 확산을 통해 상호 협력과 영적 도전을 가능케 한다. 마지막으로 현 세대와 다음세대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신앙공동체 및 영적 회복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연구를 마무리 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청소년교육, 영적 회복, 제임스 로더, 코이노니아, 평양대부흥, 청소년 멘토링

* 이 논문은 2018년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kmlee@puts.ac.kr

I. 서론

지난 2017년은 기독교 학계와 교계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을 오늘의 한국교회와 사회에 되살리고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내년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3.1정신을 되새기고, 한국과 한반도의 참된 평화와 공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한국교회와 교회학교의 교육이 되도록 이끄는 시대적 책무가 있다.

한국사회의 여타 조직 및 단체에 비교하여 볼 때 한국교회와 교회학교의 특성은 무엇이며, 다양한 제 차원 중에 어떤 차원에 우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에서 유명한 인류학자로 꼽히는 마가렛 미드(Margaret Mead)가 다음과 같은 도전과 질문을 제기한 바 있다:

오늘날의 다원주의, 이동성, 세분화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 속에서 사회질서와 구조는 점점 더 세분화되고 기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전문적 직업들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병든 자를 치유하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의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법률가들은 법을 해석함으로써 사회체제 속에 필요한 법적 정당성과 기준을 보호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인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언자, 제사장, 왕 등과 같은 애매한 이미지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언자는 프로이트, 융, 막스, 다윈, 아인슈타인처럼 그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왕은 국회의원, 주지사, 대통령처럼 정치적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회의 제사장은 마가렛 미드와 탈콧 파슨스처럼 사람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사회체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께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¹⁾

이러한 질문에 대해 제임스 로더(James Loder)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기본적으로 교회와 목회자, 교회학교와 기독교교육자들은 사회적 차원뿐 아니라 신학적 차원, 물질적 차원뿐 아니라 영적 차원, 행위적 차원뿐 아니라 존재적 차원에 대한 연구와

1) J. Loder, *Educational Ministry in the Logic of the Spirit* (Eugene, OR: Wipf and Stock Pub, 2018), p. 16.

실천을 통해 인간 개인 및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전하고 변형시켜 나갈 책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²⁾ 종교개혁 500주년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목회자 및 기독교교육자들은 한국교회와 교회학교가 한국사회와 한반도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신학적, 영적, 존재적 차원에 대한 연구와 책임 있는 실천을 수행하도록 요청받고 있다.³⁾

한국사회의 많은 조직과 기관들이 한국과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자신의 전문성과 영역 속에서 많은 노력과 공헌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교회와 사회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외형적, 물량적 성장에 비해 내적, 영적 정체성과 역동성이 급속히 약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다음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시대의 조류와 풍조에 쉽게 휩쓸릴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청소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땅의 청소년들의 영적 부흥과 회복을 위한 교육목회의 이론 및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성찰을 통해 연구를 수행해나가고 한다.⁴⁾

- 첫째, 한국사회와 청소년의 현 상황에 대한 분석적 이해
- 둘째, 청소년 영성의 토대가 되는 신앙공동체의 상관성
- 셋째, 영적 회복의 원동력으로서의 기도와 회개의 중요성
- 넷째, 청소년의 영적 회복을 위한 코이노니아적 역동성
- 다섯째,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묵상의 상보성
- 여섯째, 청소년 멘토링과 훈련을 위한 소그룹
- 일곱째, 청소년 봉사 및 선교 공동체의 중요성
-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관심 및 나눔 공동체로서의 코이노니아에 대해 성찰하고
-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2) 위의 책, 17-18쪽.

3) 임창호, 「희망으로서의 기독교통일교육」, 『한국기독교학회 45차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서울: 한국기독교학회, 2016), 246쪽.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연구정보공유서비스를 통해 많은 자료들을 검색해본 결과, 청소년 또는 신앙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위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그나마 주제어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자료는 다음의 두 자료뿐이었다. 윤호균 외, 『회개, 회복, 부흥』(서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009); 하재성, “청소년 우울증과 영적체험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이해,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Vol.24 No.2. 이 중 첫 번째 자료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성인들에게 회개와 분발을 촉구하는 목회적 접근을 시도한 목회관련 저서였다. 한편, 두 번째 자료는 교육이 아닌 상담적 접근을 시도한 논문으로서 청소년의 우울증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이기에, 본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와는 거리가 있는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 한국사회 및 청소년의 현 상황

『연합뉴스』가 조사한 한국인의 삶의 질에 대한 통계는 근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 세계 61개 주요국 가운데 2011년 삶의 질 31위에서 시작하여 계속 하락해나가다가 2016년에 들어와서는 47위로 내려앉게 되었다. OECD 가입국가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28개 조사대상국 중에 최하위인 27위를 기록하고 있다.⁵⁾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국에 대한 감사나 만족도 역시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 훗날 다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약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⁶⁾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역시 지난 10여 년에 걸쳐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10만 명당 강력범죄율이 2006년의 159.1건에서 2015년에는 209.6건으로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⁷⁾ 이러한 급속한 증가에는 복합적 요인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족 및 친구를 통한 소속감과 결속력의 약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통계에 근거한 “OECD 2016년 더 나은 삶의 지수”를 보면,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11개 부문별 순위 및 지수에서 ‘공동체’의 순위 및 지수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0.2점을 기록하고 있다.⁸⁾ 실제적인 만남과 교류는 급속히 약화되고 온라인 또는 디지털을 통한 교류에만 의존하는 삶이 청소년의 정신세계를 불건강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핸드폰 의존율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해준다. 2011년의 8.4%에서 2016년에는 17.8%로 핸드폰 과의존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⁹⁾ 또한 불행감에서 기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나타나는 자살만 살펴봐도, 청소년 불행지수의 가장 큰 요인이 가정불화 및 관계성의 단절임을 볼 수 있다. 가족, 친구, 관계성의 단절로 인한 자살이 전체 청소년 자살의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¹⁰⁾

5) 장예진, 「세계 속의 대한민국」, <http://m.yna.co.kr/kr/contents/?cid=GYH20161118000500044>; (2018. 10. 17.), 전성필, 「한국, OECD 삶의 질 평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05/2016060500454.html, (2018. 10. 18.)

6) 채지은, 「한국인 40% 다시 이 땅에 태어나고 싶지 않다」,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2>, (2018. 11. 2.)

7) 김연주, 「갈수록 흉악해지는 10대 범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6/2017090600316.html, (2018. 10. 30.)

8) 오현영, 「OECD 20년 한국, 정말 ‘선진국’인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5/2016102501229.html, (2018. 10. 30.)

9) 온라인뉴스부, 「스마트폰 첫다운제 필요」, 201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225_00053#csidx7c8c55993b451bcb66865f04613f4, (2018. 10. 30.)

10) 김경희, 「사망원인 1위 자살」, http://news.tongplus.com/site/data/html_dir/2015/03/30/2015033001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선언하셨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한국사회와 청소년들을 좌절, 우울, 불행,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오늘날 한국사회와 청소년들의 문제가 기초공동체 와해, 관계성의 약화 및 단절로 인해 생겨나고 있음을 볼 때, 건강한 공동체의 회복은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과거에는 가족, 친척,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성교육, 관계교육, 사회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에 비해, 기초공동체가 와해되고 관계성들이 약화됨으로써 사회문제와 청소년 문제들이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아가는 시기이고 아동으로부터 성인으로 변換되어가는 과정적 시기이기에 공동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부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조직과 제도 속에 갇혀서 많은 시간을 보낼 뿐 아니라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이 부정적이고 불건강하다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교육, 청소년을 위한 교회교육의 중심에 바람직한 신앙공동체 회복과 공동체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교회와 사회의 내일을 책임질 청소년들이 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내일의 거룩한 교회를 기대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운 생명력과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국가와 민족의 희망이 실천 가능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¹¹⁾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무의미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소년 세대를 가리켜 “무민세대”(無mean世代)라고 부른다. 이보다 조금은 능동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하루하루의 “소확행”(小確幸)을 찾아 움직인다.¹²⁾ 물론, 허황된 꿈을 좇는 것보다 보다 현실 가능한 꿈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한 일상의 소중함과 일상에서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매일의 소소한 일상에만 고정된 나머지 보다 의미 있고 중요하고 중요한 일들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잃어버린다면 너무 소시민적, 감각적 삶이 되고 말 것이다.

21세기의 두 번째 십년 기(second decade)를 준비하며 교회교육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어떻게 인생의 참된 의미와 건강한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이다. 이는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093.html. (2018. 11. 2)

11) E. Eisner, *The Educational Imagination* (New York: Macmillan Pub, 1985), pp.89-92.

12) 박혜정, 「무민세대: 청년의 정체성」.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82495. (2018. 11. 4)

아니라, 신앙공동체, 교육공동체, 청소년공동체가 함께 추구하고 만들어가야 할 시대적 중요과제이다.

III. 청소년 영성의 토대가 되는 신앙공동체의 중요성

프린스턴신학대학원 “청소년목회센터”(Center for Youth Ministry)의 디렉터이자 기독교교육학 교수인 켄다 딘(Kenda Dean)은 청소년과 청소년기를 이렇게 정의한다: “청소년기가 된 자녀를 더 이상 부모의 품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없기에 이제는 자기 방식으로 행동해나가도록 놓아두든지, 아니면 그를 [모리아산 위의 이삭처럼] 하나님의 손에 옮겨 드리든지 해야 하는 시기”¹³⁾가 곧 청소년기라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청소년들은 대체로 자기 방식, 또래 방식, 세상 방식을 추구하고자 하고 성인들의 문화를 너무 빨리 흉내 내려 한다. 아직은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의 문화를 앞당겨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또한 급속한 홀몬의 변화, 뇌 전달물질의 화학적 변화로 인해 개인적, 집단적 이탈과 비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딘은 청소년기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불”(fire)과 “제단”(altar)의 시기임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은 열정, 욕망, 사랑, 헌신 등의 불붙는 가슴을 뜻한다. “제단”은 그 위에 자신이 희생 또는 소멸당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힘이 아닌 타력에 의한 도움으로 놀랍게 구속되고 변화되는 시공간을 의미한다. 불과 제단으로 대변되는 청소년들의 열정, 에너지, 극적 경험과 변화는 그들에게는 “생명 또는 죽음” 같은 치열한 문제이기도 하다.

모리아산의 한 청소년 ‘이삭’의 신앙성숙, 구원, 변화를 위해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임재, 가시덤불에 걸린 숫양,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 “모리아산 경험”은 이삭에게는 신앙적 아동기(childhood)에서 신앙적 성인기(adulthood)로의 성장을 위한 일종의 의식(ritual)과도 같은 것이었다. 물론, 성경의 주된 내용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독교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경험은 이삭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판단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모든 아이

13) K. Dean, *Practicing Passio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 2004), p. xiii.

는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 및 관계성을 필요로 한다. 특히 신앙 및 영성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공동체, 영성공동체가 필요하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이러한 공동체는 신앙의 사회화뿐 아니라 신앙의 변형화, 신앙의 재형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신앙의 ‘사회화’(socialization)라 함은, 공동체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추구하는 문화와 가치, 윤리관과 세계관을 따라 배우고 모방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하고 지켜야 할 사회적 덕목들을 습득한다는 것이다.

한편 신앙의 ‘변형화’(transformation)라 함은, 외적인 모방과 습득을 넘어 그것들을 자신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구조화 및 내면화시키기는 물론이고 공동체 전통 및 인습 속에 스며있는 비본질적 왜곡들을 복음의 빛 안에서 변화시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의 ‘재형성화’(reformation)라 함은,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인 전통과 유산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 내재화 하는 동시에 부정적, 역기능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변혁함으로써 신앙 및 가치관을 재형성하는 것을 가리킨다.¹⁴⁾

다음 세대로서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수용하고 배우는 동시에, 그 속에 왜곡되거나 변질된 것들을 복음의 빛 안에서 변화시켜나가고자 하는 욕구와 열망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던지는 새로운 도전들을 성경에 기초한 영적 분별력, 개혁전통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의 지지 및 안내와 도전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감당해나가도록 교육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신앙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청소년의 신앙교육을 위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한 이론적 접근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안내를 제시해보기로 하자.

IV. 영적 회복의 원동력으로서의 기도와 회개의 필요성

2007년 한국 교회와 교단마다 “Again 1907”을 캐치 프레이즈로 외치며 다시 한 번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 나타났던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원했다. 그 당시에 잠시 열정과 부흥의 기운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그다지 눈에 띄는 회개운동이나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나 최소한 지속되지 않고 있

14) 김은주, 「제임스 로더의 변형이론에 근거한 순복음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70쪽.

음을 볼 수 있다.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이 단지 캐치 프레이즈나 운동을 통해 일어나지 않았음을 2천년 교회를 통해 볼 수 있다. 하나님과 성령은 인간의 운동이나 이벤트에 의해 움직여지거나 작동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 인간은 단지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정숙주의(quietism)나 수동주의(passivism)에 빠지고 마는 일이 될 것이다.¹⁵⁾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미 2천 년 전에 세례요한을 통해 나타 난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하였다. 세례요한이 했던 일은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은 곧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다.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지고 굽은 곳은 바로 펴지도록 하는 것이 주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례요한조차도 자신의 기대와 시간표대로 예수께서 움직여주시지 않자 사람들을 보내어 이렇게 질문한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나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마11:3).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의심의 표현일 수도 있고 조급증과 답답함의 표현일 수도 있다. 둘 중 어느 하나이든 아니면 둘의 혼합된 형태이든 간에, 예수의 얼굴을 직접 목도한 세례요한 역시 한 인간으로서의 의심, 조급증, 답답함 그리고 무력감을 경험하였던 것이다.

1907년 한국교회대부흥운동 112주년을 맞는 오늘의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같은 심정으로 그와 유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교회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심이 언제입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제기한다: “이대로 가다가 결국 유럽교회처럼 몰락하는 것은 아닌가?” “국민소득 증대와 복지제도가 확산되면 전통적 복음은 점차 빛을 잃어버리고, 대신에 생활화, 문화화, 윤리화된 신앙이 사회 저변에 뿌리내리게 되면 전통적 신앙은 과거의 유물이 되는 것 아닌가?”

새 시대는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어떤 형태의 신앙, 어떤 형태의 교회가 새롭게 나타나든 간에 이런 변화가 전통신앙 및 전통교회를 완전히 없애거나 대체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그보다는 오히려 상호 공존하고 혼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공존과 혼재가 포스트모던 시대와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재 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성경에 기초하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교회라

15) R. Modras, *Paul Tillich's Theology of the Church* (Detroit, MI: Wayne State Univ. Press, 1976), pp. 101-104.

면, 그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교회라는 것이다.

평양장대현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한 교회로서 성경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했던 교회였다. 이런 자랑스러운 개혁전통에 입각하여, 오늘날 교회의 위기 특히 청소년의 위기 앞에서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 청소년의 영적 부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교회교육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V. 청소년의 영적 회복과 “코이노니아” 역동성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는 핵심 주제는 코이노니아 역동성의 회복이다.

여기에서 코이노니아는 신적 코이노니아(divine koinonia)와 인적 코이노니아(human koinonia)를 함께 포괄한다. 신적 코이노니아의 회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스틱 친교(perichoretic fellowship)에 크리스천 개인과 공동체가 참여함”을 의미한다.¹⁶⁾ “인적 코이노니아”의 회복은 인간의 모든 본래적, 창조적 관계가 열리고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상처가 치유되고, 이로 인한 왜곡이 교정되고, 막혔던 소통이 열리고, 침체되었던 것이 활성화되고, 2차원적으로 축소되었던 것이 4차원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청소년의 영적 부흥과 거룩한 교회 회복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부흥과 회복은 민족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가능케 한다.¹⁷⁾

코이노니아(koinonia)의 기본 원리와 정신이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은 곧 ‘예배’(leiturgia)를 통해 가능하다. 예배 속에 나타나는 경배, 감사, 간구, 중보, 말씀선포와 축복은 코이노니아의 정신을 가감 없이 표출하고 구현하게 된다. 일본의 토요에이와조대학교의 후카이 토모아키 총장은 “lex orandi, lex credendi”(The law of praying is the law of believing, 기도의 법이 신앙의 법이다)라는 고대 교회 이래로 전해오는 기독교의 유명한 명제를 강조한다.¹⁸⁾ 이 말은 곧 기도하는 장소가 곧 신앙이 출발하는 장소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신학에서 예배가 나오기 보다는 예배를 통해 신학이 출발되고 형성된다는 것이다.¹⁹⁾ 이러한 정신 위에서 코이노니아의 원

16) K. Lee, *Koinonia* (Ann Arbor: A Bell & Howell Company, 1996), p. 158.

17) 이규민, 「기독교교육과 신앙공동체의 상관성 연구: 셰릴(L. Sherrill)의 신앙공동체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제14집(2006), 34-35쪽.

18)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21>; https://en.wikipedia.org/wiki/Lex_orandi_lex_credendi, (2018. 11. 12.).

19) J. Vann, *Worship Matter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1).

리와 정신 역시 기도와 예배를 통해 출발되고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그룹으로서의 예배는 그 크기와 열기, 스케일과 규모 면에서 소그룹으로서 만들어낼 수 없는 강력한 역동성을 제공하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서 감성, 열정, 헌신, 몰입 등이 탁월함을 생각할 때, 대그룹 예배를 통한 회심, 결단, 변형의 체험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위해 성경에 기초하고, 청소년의 발달론과 문화에 민감하고, 청소년의 관심과 핫 이슈를 터치하는 예배, 대안을 제시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를 구성하고 디자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 코이노니아의 역동성과 가능성이 이미 시작되는 것이다.

VI.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묵상: 레이투르기아 & 케리그마(Leitourgia & Kerygma)

크리스천의 70% 이상이 청소년기에 회심체험을 하게 되고, 회심체험을 통해 크리스천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종교심리학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코이노니아적 역동성이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는 것은 회심과 양육의 역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대그룹예배가 얼마만큼 생동력이 있는가 하는 것은 이후 소그룹 모임과 활동의 생명력과도 직결된다고 하겠다.

대그룹예배에서의 역동성과 생동력은 마치 마음에 붙은 캠프 파이어의 휘발유와도 같다. 휘발유는 빨리 크게 타오르지만 그것은 일종의 스타터와도 같다. 그 불이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고 사역을 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그 불이 통나무 장작에 옮겨 붙어야만 한다. 통나무 장작은 말씀묵상, 기도, 나눔, 적용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존재 중심을 밝히고 삶을 바꾸는 불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회심과 이러한 변형을 가리켜서 “통전적 회심, 통전적 변형”이라 부른다. 통전적 회심은 반드시 양육을 필요로 하고, 통전적 변형은 사회화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²⁰⁾

통나무 장작에 불을 옮겨 붙이는 작업은 말씀묵상 사역을 통해 가능하다. 말씀묵상은 개인묵상과 그룹묵상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개인묵상은 말씀과 자신의 내면이라는 1대 1의 묵상이라면, 그룹묵상은 말씀과 그룹이라는 1대 다수의 묵상이다. 개인묵상이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라면, 그룹묵상은 공동체의 삶에 함께

20) 이규민, 「통전적 회심 이해와 기독교교육」, 『교육교회』, 238호, 8-9쪽.

적용하기 위해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비교하고 조합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러한 개인묵상과 그룹묵상을 통해 개인의 변화와 공동체의 변화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심화되고 완성되어 나간다.

발달론적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감성적이고 폭발적이다. 이들은 지적으로 동의가 되고 정서적으로 마음이 통하게 되면 지체 없이 결단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성인들에 비해 그 변화와 반응의 폭과 깊이가 넓고 깊게 나타난다. 입시의 노예가 되기 쉬운 환경적 제약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청년이나 중년에 비해 청소년들은 훨씬 빠르고 분명한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변화와 변형이 이들의 현재 삶과 미래의 인생에 잊혀 지지 않는 각인과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분명히 나타나는 변화와 부흥의 원리가 있다. 참된 변화와 부흥은 반드시 개인과 집단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다. 야곱의 압박나루터 씨름사건과 벤엘 귀환, 요시아왕의 종교개혁, 바울의 다메섹 회심, 초대교회의 다락방 기도운동, 중세의 종교개혁, 웨일즈 부흥운동, 웨슬리의 회심, 미국의 대각성운동, 아주사 부흥운동, 평양대부흥 운동 등 모두가 개인과 집단의 회개운동과 기도운동을 통해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자신과 교회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청소년의 영적 부흥과 거룩한 교회 회복”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회개운동과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회개운동과 기도운동은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일어나지 않고, 혹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일시적, 일과적으로 반짝 하다가 사라지고 만다. 회개운동과 기도운동은 사실 운동보다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정성 있는 기도, 정직한 말씀묵상을 통해 일어난다. 1907년 평양대부흥도 1903년에 시작된 원산 성경공부로 인해 가능했고, 1903년 원산 성경공부도 하디 선교사 한 사람의 참된 눈물의 회개로 가능하게 되었다.²¹⁾

한 사람의 진실된 회개가 말씀묵상으로 이어졌고, 정직한 말씀묵상이 기도운동으로 이어졌고, 기도운동이 회개운동으로 이어져서 생겨난 것이 1907년 평양대부흥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성경 속에도 그대로 나타났고 2천년 기독교역사 속에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영적부흥이 일어나려면 무엇보다 참된 예배, 진정성 있는 기도, 정직한 말씀묵상이 선행되어야 한다.²²⁾ 이러한 예배, 기도, 묵상은 곧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그 죄를 토설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기에 회개로 이어진다. 이러한 회개가 깊어지고 진정성 있게 되고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

21) 박용규, 『평양대부흥』(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44쪽.

22) 박용규, 『평양대부흥 이야기』(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153-155쪽.

나게 될 때 그것은 곧 회개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회개운동은 반드시 개인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킨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웨일즈 부흥운동, 미국의 대각성운동, 한국의 장대현교회 대부흥으로 나타난 것이다. 참된 예배, 기도, 묵상을 통한 회개운동이 청소년부의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면, 그 회개운동이 자기 반, 자기 부서, 교회, 학교,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적 파장과 임팩트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파장과 임팩트가 다른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놀라운 변화와 변형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함으로써 먼저 자신의 회개와 자신의 변화가 모범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VII. 청소년 멘토링과 훈련을 위한 소그룹 (Didache)

이러한 기도운동과 회개운동은 들불처럼 번져가고 바람처럼 휩싸이게 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대로 놓아두면 휘발유처럼 확산되고 퍼져나갈 수 있지만, 그것이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멘토링과 훈련이 뒤따라야 한다. 멘토링이 단체보다는 개인 중심의 접근이라면, 훈련은 개인보다는 단체 중심의 접근이라 하겠다.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 사이에 참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적 돌봄, 안내, 상담, 영적 지도를 통해 바람직한 신앙의 터전과 기틀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훈련은 멘토링을 받는 멘티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일정한 커리큘럼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신앙, 인격, 삶을 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²³⁾ 구체적인 훈련과제를 달성하고 완수하게 함으로써 이론만이 아닌 실천을 통한 훈련을 가능케 한다. 이런 훈련은 실제적인 봉사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역동화시키고 완성시켜 나간다.

한편, 훈련 소그룹(Training Group, 이하 T그룹)은 멘토링에 비해 훨씬 더 집약적이고 집중적인 훈련을 위해 구성된 일종의 특별훈련 그룹이다. 공동의 훈련목표 달성을 위해 지도자와 팀원들이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준수하되 서로 간에 일종의 명시적 맹약과 암묵적 묵계를 함께 지켜나감으로써 함께 경험, 체험, 성장, 성숙해나가는 경험 및 훈련 공동체인 것이다.²⁴⁾ T그룹은 신앙훈련, 영성훈련, 성품훈련 등을 단기, 중기,

23) 박안석, 『멘토링』 (서울: 비전북하우스, 2013). 74쪽.

24) P. Becker, *Called to Care: A Training Manual for Small Group Leaders* (Grand Rapids: Herald Press, 1993), p. 59.

장기적으로 함께 시작하고 함께 마칠 뿐 아니라 일종의 단계와 과정을 마친 후에는 자체 평가를 통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서로 체크하도록 한다. 피드백을 통해 다음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위한 동의와 컨센서스가 확립되면 그 다음 단계의 훈련을 향해 나아가도록 한다. T그룹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소기의 목표를 향해 집중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와 동시에 많은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멘토링과 T그룹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멘토링은 상담적 돌봄 및 안내 중심의 반영적 접근이라면 T그룹은 교육과 훈련 중심의 목표 지향적 접근이라는 특징이 있다.²⁵⁾ 전자가 양육적 접근이라면 후자는 회심적 접근과 유사하다. 이러한 두 가지 접근은 청소년의 영적 부흥을 위한 들숨과 날숨처럼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사용될 필요가 있다.

VIII. 청소년을 위한 선교의 장과 나눔 공동체 개발(Diakonia & Koinonia)

청소년 봉사란 자신이 받은 은사, 재능,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이웃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좁고 이기적이고 약화되고 찌들 수밖에 없음에 비해, 타인을 위한 삶은 넓고 이타적이고 강화되고 피어날 수밖에 없음을 모든 이론과 실천을 통해 알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봉사란 사실 남을 위하는 동시에 자신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 남을 돕는 만큼 자신을 돕게 되고, 남을 성장시키고 해방시키는 만큼 자신이 성장되고 해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봉사를 위해 다양한 사역과 다양한 장을 개발하고 현실 가능한 과제와 프로젝트들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적 강제가 아닌 철저히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봉사의 과제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참여는 사랑의 참여와 실천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자신을 보다 구체적으로 훈련하고 성숙시키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이제 피아제의 형식적 인지(formal operational cognition) 단계와 파울러의 종합적-인습적 신앙(Synthetic-Conventional Faith)의 단계에 접어든 시기이다(Piaget, 1980). 이들은 현재적 미완성과 미래적 완성을 향한 미지의 길에 한 걸음을 내디딘 자들이다. 이 시기에 다양한 학습과 체험을 통해 자신과 세상에 대한 눈뜨임을

25) 이규민,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사영성」, 『교사 미션트립』(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자원부, 2011), 109쪽.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²⁶⁾ 특히 자신과 같은 시기를 살고 있는 또래 청소년들을 보다 깊고 풍성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것에 눈뜨게 되고 보다 생생한 도전과 거룩한 비전을 꿈꾸게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과 교제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러한 기회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 것인가를 찾아보아야 한다. 취미, 특기, 관심사, 주제, 또래, 선후배 등을 중심으로 한 모임 등 각 교회와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모임의 형태와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성을 키우고 무한한 자신의 잠재력과 함께 공동체의 엄청난 시너지를 체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과 공동체와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대안과 방안들은 저명한 커리큘럼 학자 마리아 해리스(Maria Harris)의 『교육목회 커리큘럼』(*Fashion Me a People*)에 나타난 대안들과도 일맥상통한다.²⁷⁾ 대그룹 예배가 예전과 말씀선포를, 소그룹 목상모임이 케리그마와 디다케를, 멘토링과 훈련모임이 디다케와 디아코니아를, 봉사 및 선교 모임이 디아코니아를, 교제 및 나눔 모임이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IX. 결론

2019년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와 다음세대의 위기를 말하며 다양한 염려와 불안을 표출한다.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려면 그 동안 소홀히 했던 소통, 나눔, 자기 비움, 봉사, 모범적 사회참여에 헌신하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교회, 노회, 총회는 물론이고 초교파적 협력과 연대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런 외적 사역과 참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스스로를 새롭게 하려는 자정적 노력과 함께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는 결정적 “황금시간”(golden time)이 있다.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한 “황금시간”은 향후 10년 내의 기간으로 보인다.²⁸⁾ 이 시간 안에 한국

26) J. Fowler, *Stages of Faith* (New York: Harper & Row, Pub, 1981), p. 151.

27) M. Harris, *Fashion Me a People*. Louisville: Presbyterian Publishing Corporation, 1989.

28)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4), 47쪽.

교회와 다음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 한국과 한국교회는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예언처럼 다시 한 번 그 등불이 밝게 그리고 힘차게 타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리고 떠오르는 다음 세대인 청소년의 영적 부흥을 위해 현 세대는 기도할 책임이 있다. 기도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영적, 정신적, 물질적 유무형의 투자와 노력을 쏟아 넣어야 한다. 이들을 위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그리고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어야 한다.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묵상, 멘토링과 T그룹, 봉사 및 선교 공동체, 관심 및 나눔 공동체를 통해 청소년의 영과 정신이 깨어날 때, 이들은 이들의 부모, 교사, 현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게 된다.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희망과 용기를 나누게 될 때, 한국교회와 사회를 포함한 한반도 공동체의 새로운 내일을 향한 비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하나씩 열매 맺게 될 것을 기대하며 논의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은주. 「제임스 로더의 변형이론에 근거한 순복음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한세대 학교대학원 미간행박사학위논문, 2015.
- 박안석. 『멘토링』. 서울: 비전북하우스, 2013.
- 박용규. 『평양대부흥』.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 박용규. 『평양대부흥이야기』.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 이규민. 「통전적 회심 이해와 기독교교육」. 『교육교회』238, 1996.
- 이규민. 「기독교교육과 신앙공동체의 상관성 연구: 셰릴(L. Sherrill)의 신앙공동체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14, 2006.
- 이규민.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사영성」. 『교사 미션트립』.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자원부, 2011.
- 임창호. 「희망으로서의 기독교통일교육」. 『한국기독교학회 45차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4.
- Becker, P. *Called to Care: A Training Manual for Small Group Leaders*. Grand Rapids: Herald Press, 1993.
- Dean, K. *Practicing Passio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 2004.

- Eisner, E. *The Educational Imagination*. New York: Macmillan Pub, 1985.
- Fowler, J. *Stages of Faith*. New York: Harper & Row, Pub, 1981.
- Harris, M. *Fashion Me a People*. Louisville: Presbyterian Publishing Corporation, 1989.
- Lee, K. *Koinonia*. Ann Arbor: A Bell & Howell Company, 1996.
- Labinowicz, E. *The Piaget Primer: Thinking, Learning, and Teaching*. Menlo Park, CA: Addison-Wesley, 1980.
- Loder, J. *Educational Ministry in the Logic of the Spirit*. Eugene, OR: Wipf and Stock Pub, 2018.
- Modras, R. *Paul Tillich's Theology of the Church*. Detroit, MI: Wayne State Univ. Press, 1976.
- Sherrill, L. *Family and the Church*. New York: Abingdon Press, 1937.
- Sherrill, L. and Purcell, J. *Adult Education in the Church*. Richmond: Presbyterian Committee on Publication, 1936.
- Vann, J. *Worship Matter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1.
- 김경희. 「사망원인 1위 자살」, 2015. http://news.tongplus.com/site/data/html_dir/2015/03/30/2015033001093.html. (2018. 11. 2)
- 김연주. 「갈수록 흉악해지는 10대 범죄」, 20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6/2017090600316.html. (2018. 10. 30.)
- 박혜정. 「무민세대: 청년의 정체성」, 2018.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82495. (2018. 11. 4)
- 오현영. 「OECD 20년 한국, 정말 '선진국'인가」, 20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5/2016102501229.html. (2018. 10. 30.)
- 온라인뉴스부. 「스마트폰 섯다운제 필요」, 201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22500053#csidx7c8c55993b451bcb66865f04613f4>. (2018. 10. 30.)
- 장예진. 「2016 세계 속의 대한민국」, 2016. <http://m.yna.co.kr/kr/contents/?cid=GYH20161118000500044>. (2018. 10. 17. 접속)
- 전성필. 「한국, OECD 삶의 질 평가」, 20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05/2016060500454.html, (2018. 10. 18.)
- 채지은. 「한국인 40% 다시 이 땅에 태어나고 싶지 않다」, 2016.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2>. (2018. 11. 2.)

원고접수일: 2018년 12월 19일 / 심사일: 2019년 1월 26일 / 게재확정일: 2019년 2월 5일

연구자 소개: 이규민

- ① 전공: 기독교교육 / 소속과 직위: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 ② 관심영역: 기독교교육학, 교육심리와 영성, 실천신학, 상담심리와 치유
 - ③ 주요논저: 『포스트모던 시대의 통전적 기독교교육』,
『미래세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과 영성: 참된 영성 회복을 위한 기독교교육』외 다수
 - ④ E-mail: kmlee@puts.ac.kr
-

Abstract

**Christian Education for the Restoration of Faith Community and
Spirituality: with a Focus on Youth Education**

Lee, Kyoomin

Presbyter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severity of fragmentation and disintegration in which Korean society as well as youths are situated. As an effort to find an alternative or at least a corrective to this situation this study inquires about the restoration of faith community and spiritual vitality. This inquiry lays an emphasis on youths and Christian education for youths so that it may provide more potential for the future of Korea and Korean churches since youths are the representative next gener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t will proceed its investigation according to the following steps. First, it will investigate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faith community. Second, it will inquire the importance of prayer and repentance for the spiritual restoration. This will be based upon the dynamic principle operant in Pyongyang Great Awakening Movement. Third, the dynamism of koinonia will be explored for the spiritual restoration of youths. Fourth, ways toward spiritual empowering of youths will be suggested based upon large scale worship and small group biblical meditation. Fifth, providing of mentoring and training group experiences for youths will be included. Sixth, mission fields and sharing communities for youths will be discussed and developed. At the same time proliferation of caring as well as sharing communities for youths will be suggested for the reciprocal cooperation and challenge among youths. Lastly, a crucial alternative to the drawbacks of the status quo will be provided based upon experiences and wisdom proper through sharing and mutual cooperation between current generation and next generation.

Key Words: Youth Education, Spiritual Restoration, James Loder, Koinonia, Pyongyang Great Awakening, Mentoring for Youth